

Love wins all

사랑은 무거운 것이라 말했습니다. 사랑을 쉽게 말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만큼 서로의 시간이 필요하고 서로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사랑해'란 말에 물음표가 아닌 아무런 저항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겠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결코 가벼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 속엔 너와 내가 충만하게 담겨있어야 합니다.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같은 것을 보고 느낍니다. 사랑이란 공간 안에 사랑이란 시간을 보낸 너와 나는 같은 사랑을 보고 느낍니다.

사랑은 내게 약점이 되기도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한없이 작아지며 초라해지는 나를 보기도 하고 무엇이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나를 보기도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에 지게도, 모든 것을 이기게도 합니다.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것이 없습니다. 매번 끝까지 고민하고 최선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발생해도 그것이 최선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춰둔 후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두려워서 도망친 것이 있습니다. 나를 아낀다는 이유로 끝까지 해내지 못한 게 있습니다.

아직 삶을 다 마치진 못했지만 그래도 가끔 생각해 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에게 남아있을 것은 무엇인지. 내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31년 동안 쪽 남아있어 준 것은 무엇일까요. 나란 존재 자체와 사랑뿐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에 대한 사랑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군요. 그렇다면 내가 삶을 마칠 때에도 남아있는 것, 그리고 나보다 더 남아있어 줄 것은 사랑 아닐까요?